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장애인단체, 정책 약속 미흡 지적

### 저상버스 100대→60대·전용차량 7대→1대 도입...재정 열악 이유 무장애 정류소 설치·육교 철거·보호구역 지정 개선 등 일부는 진전

광주시가 올해도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소, 육교 철거 등을 통해 이동 편의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계획과 실제 진행되는 사업 사이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광주시가 약속한 정책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저상버스 100대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 7대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는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저상버스는 60대, 전용 차량은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데 그칠 예정이다.

전용 차량은 한 대 더 추가되면 법정대수인 128대를 겨우 맞추게 되지만, 저상버스는 올해 새로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르면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를 교차할 때 저상

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 60대 이상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추경 확보를 통해 추가 도입을 검토하려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차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무장애 정류소 설치, 육교 철거,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등 여객시설·보행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진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장애 정류소는 화단, 휴지통 등 버스 승하차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없애 교통약자의 정류소 접근과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설계한 정류소를 말한다.

광주 지역 내 무장애 정류소는 지난해 말 기준 157곳의 무장애 정류소가 설치됐다. 올해는 추가로 약 8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10곳이 더 설치된다.

전문가들은 저상버스가 도입돼도 승강장과 보도의 단차나 정확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

록 등 정류소의 장애요인 탓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힘들다는 점에서 무장애 정류소 확대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계단을 통해 건너야만 하는 육교 철거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북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용주초 육교를 철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육교는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교통약자법은 육교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완만한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육교는 설치 당시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을 반영했을 뿐 추가로 경사로, 승강기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광주시는 노후육교를 철거하고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7억여원을 투입해 관련 시설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인도와 차도를 방호 울타리로 분리, 표지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다만 12억여원을 들여 9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음성안내가 가능한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는 예산 부족으로 3곳 설치에 그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1회 환경공론장' 쓰레기 감량 다짐 최근 '제1회 환경공론장'이 열린 광주시 동구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참가자들이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 감량을 다짐하고 있다. 환경공론장은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를 민·관·의·학이 함께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공유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광주시 동구 제공>

## 음식물쓰레기, 일반가정 줄고 사업장은 늘어

### 광주 서구, '다량배출사업장 맞춤형 감량 컨설팅' 진행

광주시 서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서구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연 발생량은 3만2119t이며, 그중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은 6206t으로 전체 발생량의 20%에 달한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2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서구의 설명이다.

이에 서구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감량방안을 알려주는 '다량배출사업장 맞춤형 감량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구는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치평동 소재 다량배출사업장 184곳을 대상으로 참여 사업장을 모집 후 업종과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

려해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서구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학계 전문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진,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발생량, 처리방법, 식수인원 등 기초자료를 분석한 후 8월부터 자문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음식물쓰레기 업종별 맞춤형 감량방안 진단 ▲사례별 개선 사항 및 기타 운영상 애로 상담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지도·안내 등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서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사업장별 감량 효과를 분석해 효율적인 감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지역 어린이 어선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담아서 들여보내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우리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2월 까지 '우생순 프로젝트' 목표서 진행

바다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 병을 줄이기 위한 '우생순 프로젝트'가 목포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우생순 프로젝트'가 목표 해역에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우생순 프로젝트는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병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서해해경청에서 어민들에게 재활용에 필요한 봉투를 지급하면 어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폐플

라스틱병을 자발적으로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 해양쓰레기가 14만 5000여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양 폐플라스틱 오염을 막고 해양 미관을 개선 시키기 위해 지난해 군산해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만 600여개(1t 분량)의 폐플라스틱이 수거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해해경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목포시, 목포수협, 목포자망협회와 함께 목포 해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남구, 여름방학 급식 공백 해소 19일~8월16일 하루 9천원 지원

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광주시 남구가 팔을 걷어붙였다. 남구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여름방학 급식 공백 해소를 위해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아동 급식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보호자가 맞벌이 또는 질병·장애 등의 이유로 아이들이 방학기간 굶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이들과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1786명이다. 선정된 아이들에게는 하루 급식비 9000원이 지원돼 일반음식점과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중 선택해 각자 원하는 곳에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음식점 1069곳, 편의점 163곳, 패스트푸드점 82곳, 중식 66곳, 기타 632곳의 제휴 업체에서 급식카드를 이용해 사먹을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 배달을 선택한 아이들은 급식카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남구는 급식 제공 기간에 지역아동센터 47곳과 도시락 제조·배달업체 1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나주에 건립

나주에 전기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센터)가 들어선다.

환경부는 나주 혁신산업단지(6632㎡) 내에 2027년 센터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남도, 나주시와 함께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 전주기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54억원을 들여 센터 구축을 건립하기로 했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 전기차 인종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전기차 탄소발자국(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총량)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 세워지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조감도. <환경부 제공>

현한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생산량, 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